

# 감각과 열정의 도시, 베네치아로 떠나는 '생각 여행'



## 삶이 축제가 된다면

김상근 지음

인문학자인 김상근 연세대 신학과 교수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하기 시작한 지난 1월 베네치아에 있었다. 중국 우한에서 바이러스가 급속도로 퍼지던 무렵이었다. 그는 베네치아 거리 곳곳을 돌아다니는 중국 관광객들을 보며 두려움을 느꼈다. 그는 좁은 골목길에서 사람들을 만나면 황급히 카페 안으로 들어가기 시작했다.



한마디로 베네치아는 "전염병에 취약한 도시"였다. 미로와 같은 길은 비밀이 될 때가 많았다. 열악한 상수도 시설과 녹녹한 날씨, 세균 배양을 위한 거대한 인큐베이터로 착각될 정도였다. 베네치아가 지금까지 세계적인 역병의 유행이 비껴가지 않은 것은 그러한 환경과 무관치 않다. 한국으로 가기 위해 공항으로 가는 길,

김 교수는 오래도록 베네치아를 바라보았다. 마지막 베네치아 여행이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 때문이었다. 그에게 베네치아는 '감각과 열정의 도시'다. 셰익스피어의 명작 '베니스의 상인'의 배경이 됐으며 화가 벨리니아 티치아노가 위대한 작품을 남겼던 곳이다.

김 교수는 최근 베네치아를 걸으며 여행과 삶에 대한 단상을 유려한 글로 풀어낸 '삶이 축제가 된다면'을 펴냈다. '여행자를 위한 인문학'이라는 부제가 붙은 책은 베네치아를 모티브로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방식을 돌아보게 한다.

"그렇다면 나는 지금 이 책을 통해 베네치아에 대해 말하려고 하는가, 아니면 베네치아에 대한 내 생각을 말하려고 하는가? 굳이 베네치아를 여행지로 선택하지 않더라도 모든 여행은 원래 그렇다. 내가 어떤 특정한 여행지에 도착해서 먹고, 보고, 경험하고 잠으로써 여행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생각'이 그 도시를 여행하는 것이다."

알려진 대로 베네치아는 아름다운 물의 도시다. 18세기 북부 유럽인들에게 이곳은 '그랜드 투어'의 목적지였다. 단테, 괴테, 보카치오, 풍테뉴, 모짜르트, 찰스 디킨스, 라이너 마리아 릴케, 마르셀 프루스트 등 수많은 인물들이 베네치아를 찾아 예술과 문화의 꽃을 피웠다.

물의 도시는 생명과 상상의 근원이다. 아니 베네치아는 그 자체로 하나의 예술품



2007년 베네치아 비엔날레에 출품했던 러시아 조각가 게오르기 푸랑굴리안의 '단테의 범선'.

이다. 전설적인 아트 컬렉터인 페기 구겐하임은 이렇게 말했다. "정서적인 삶이란 베네치아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기서는 모든 것들이,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물 위에 떠다닙니다. 이렇게 물 위에서 떠다니며 사는 것이 베네치아에서는 멋진 일상입니다. 물결이 비친 도시는 그림처럼 보이는데, 최고의 거장이 그린 어떤 작품보다 더 아름답습니다."

저자는 우선 고전 작품 속으로 독자들과 안대한다. 베네치아를 걸으며 마르코 폴로

의 '동방견문록', 토마스 만의 '베네치아에서의 죽음' 같은 작품을 소개한다. 아울러 무라노섬에서는 카사노바의 '나의 편력'을, 아르세날레에서는 단테의 '신곡'을 이야기한다.

베네치아의 중심 산 마르코 광장과 그 주변에 대한 이야기도 흥미롭다. 화재의 잦아미 위에 쌓아올린 두칼레 궁전은 당대 최고의 건축가들이 그 시대 예술 사조를 반영했다. 보는 각도에 따라 궁전이 다르게 보이는데 비잔틴 양식과 고딕 양식, 르네상스



수상도시답게 베네치아는 풍광이 아름다운 곳이 많다. 아카데미아 다리에서 본 살루테 성당.

양식의 공존은 그 자체로 경이롭다.

비둘기와 갈매기가 공존하는 산 마르코 광장에는 인공 건축물인 종탑이 있다. 98.6m에 달하는 종탑을 가리켜 '모든 저택의 주인'이라고 부른다. 종탑과 마주하고 있는 또 다른 베네치아의 명물 시계탑을 둘러보는 것도 인상적이다.

이밖에도 저자는 회화와 조각, 음악 등도 소개한다. 아울러 벨리니, 틴토레토, 티치아노, 팔라디오, 롱게나 등 베네치아를 대표하는 예술가들의 흔적을 좇아 르네상스

에서 바로크 시대까지를 횡단한다. 그것의 기점이 되는 장소는 벨리니의 '보좌에 앉으신 성모자', '피에타', 조르조네의 '템페스트'가 있는 아카데미아 박물관 등이다.

저자는 말한다. "베네치아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베네치아에 대한 생각의 생각을 묶은 책"이라고. 그러면서 "텐데믹의 영향으로 몸의 물리적인 이동은 불가능해졌으나 생각의 여행은 언제 어디서나 계속되어야" 한다고. <시공사·2만2000원>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 암호의 모든 것

스티븐 핑크마크 프리리 지음, 김경미 옮김

암호의 개발과 해독은 때때로 역사의 흐름을 바꿔놓곤 했다. 암호는 인간의 상상력을 자극하는 흥미로운 소재 가운데 하나다. 우리를 둘러싼 전파는 디지털 암호로 가득 차 있다. 휴대폰으로 통화를 할 때, 케이블 채널을 볼 때 타인이 보지 못하도록 암호화된다.



고대 이집트부터 현대 컴퓨터 프로그래밍까지 코드의 제작 역사를 담은 '암호의 모든 것'이 출간됐다. 과학 저널리스트이자 세계 유수의 학술지 '스프링거 네이처'의 편집자인 스티븐 핑크마크 제네바에 위치한 CERN 핵물리학 연구소 연구원이었던 마크 프리리가 공동 저자다. 언급한 대로 암호는 현대에만 존재하지 않았다.

지난 2000여 년 동안 코드(code)와 사이퍼(ciphers)는 정치에서 전쟁에서 중대한 역할을 해 왔다. 암호 작성가와 암호 분석가 사이에 치열한 공방이 끊이지 않은 것은 당연지사다.

고대 로마에는 카이사르의 암호문이 있었다. 그는 전쟁 회고록 '갈리아 전쟁'에서 전시 중요한 메시지의 보관을 위해 노심조사했다. 이러한 사실에서 보듯 로마인들은 카이사르가 암호문을 사용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또한 1587년 잉글랜드 뛰어난 암호 분석가는 빈도 분석을 이용해 군주를 죽음에 이르게 하기도 했다.

현대에 들어선 냉전시대에 코드의 전쟁이 있었다. 1943년 초 미국 육군 신호정보국은 버지니아주 알링턴 힐을 근거지로 소련 외교 통신을 감시하는 비밀 프로그램을 만들었다. '베노나'로 불리는 이 프로그램은 전직 교사였던 진 그레빌에 의해 시작됐으며 전쟁이 끝나자 언어학자 메리디스 가스너가 합류했다. 그는 27년 간 베노나의 주요 번역가이자 분석가로 활동했다. <사람의 무늬·2만2000원>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하지 않는다

김현문 지음

"나는 누구인가? 지수화풍(地水火風)으로 이루어진 이 몸뚱이는 내가 아니다. 몸뚱이가 만들어내는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그리고 생각도 내가 아니다. 먹고, 배설하고, 호흡하고, 움직이고, 말하는 이 운동기관도 내가 아니다. 나를 움직이게 하는 기(氣)도 내가 아니다. 사랑하고, 미워하고, 생각하는 이 마음도 내가 아니다."



남도지역에서 미술담당기자를 오래 한 김현문(본명 김현석)은 독특한 이력의 소유자다. 대학에서 독문학을 전공했으며 KBS 방송작가 교육원 1기를 수료했다. 문경 봉암사, 원적사 등지의 선원에서 선 수행에 몰두했다.

이번에 그가 펴낸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그동안의 사유와 선방에서의 참선 등 다양한 체험을 담고 있다. '나를 찾아서', '고목이 찬 바위에 기대라', '차나 한잔하고 가시게', '병 속의 새', '성인이 지옥에 가고 청년이 극락에 들리라' 등 깊이와 삶의 지혜가 담긴 내용들로 채워져 있다.

책을 관통하는 전반적인 내용은 '자신의 본질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나라는 인간은 전체의 마음에서 왔고 전체의 마음이란 바로 우주의 마음으로부터 본다. 즉 나의 성품은 우주의 마음에서 비롯됐다는 의미다.

책 표지는 강행복 화백의 목판화가 장식했다. 5가지 기운에 의해 발현되는 태극의 이미지가 이색적이다.

한편 저자는 '연애편지'라는 짧으면서도 감성이 깃든 글을 모은 산문집도 펴냈다. 제목처럼 책에는 잔잔한 울림을 주는 다수의 글이 담겨 있다. <하음출판사·1만6500원>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 일하는 사람의 생각

박용현·오영식 지음

'책은 도끼다' 등을 펴낸 광고인 박용현과 현대카드, JTBC 등의 브랜드 아이덴티티 프로젝트를 진행한 디자이너 오영식이 '창작'에 대한 이야기를 나눈 책이 나왔다.



'일하는 사람의 생각'은 광고와 디자인이라는 크리에이티브 최전선에서 뛰고 있는 박용현과 오영식 두 사람이 허심탄회하게 나눈 대담의 내용을 기록한 책이다. 디자인 저술가 김신이 진행자로, 질문자로 나서 대화를 이끌고 내용을 정리해 책으로 묶었다.

책은 지난해 5월부터 10여차례 걸쳐 진행한 대담을 바탕으로 만들어졌다. 창의력과 창조성을 핵심 역량으로 삼아 일하는 두 사람은 각자의 일터에서 어떤 과정을 거쳐 문제 해결에 이르렀는지, 결과물을 내놓기까지 어떤 고민들이 있었는지, 30년 넘게 현장에서 치열하게 활동하며 얻은 경험과 깨달음을 진솔하게 들려준다.

책은 대담의 내용을 8가지 주제로 재구성했다. 두 사람이 각각 광고와 디자인이라는 그들의 일을 찾아가는 과정을 압축해서 들려주는 '창작자가 되기까지'를 시작으로 창작자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영감과 아이디어, 예술성과 표현에 관한 이야기를 다룬 '영감에 대하여', '예술과 비즈니스 사이' 등이 이어진다. 또 디지털 모바일 시대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거치고 젠더문제와 세대 문제가 전면에서 등장하면서 맞게 된 '변화하는 환경', 아이디어의 발상, 열정과 진정성의 의미 등을 다룬 '창작이라는 일' 등을 만날 수 있다.

그밖에 두 사람은 '브랜딩, 광고와 디자인의 접점', '클라이언트', '직장생활' 등에 대한 주제를 놓고 흥미로운 대화를 나눈다. <세미콜론·1만8000원>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 허균, 불의 향기

한글 문학의 뛰어난 성취인 '홍길동전'의 작가 허균 그에 대한 헌사가 소설 '허균, 불의 향기'로 피어나다.

역사적 사료 이면에 드리워진 진실을 이진 작가는 특유의 방식으로 탐색하고 풀어낸다.

출판사 : 국학자료원 새미(주) 02-442-4623

### -작가의 말

"허균과 함께 한 지난 몇 년은 참으로 충만했다. 넓어지고 깊어지고 풍성해졌다. '사람들이 내 시를 보면 이것은 허균의 시다라고 말해주면 좋겠다'던 허균의 당당한 바람까지도 나의 것이 되었다. 이젠 그 충만감을 다른 이들과 나눌 때가 된 듯하다. 혼자만 누리기에 그가 너무 크다."

### -추천사

"휘몰아치는 강렬한 서사, 한 편의 영화를 보는 듯한 탁월한 이미지, 영롱하게 반짝이는 시적인 문장. 소름 돋는 전율에 취해 눈을 떼지 못하고 읽어내렸다. 조선이 버린 인물 허균이 이 소설을 통해 21C 대한민국에서 새롭게 탄생한다. 이름을 부르면 금방이라도 달려올 것 같은 생동감 넘치는 인물들과 함께." - 함진원 시인

저자 이진

조선 최고의 여성 시인이자 조선 최초 합류를 일으킨 주인공 허남설현 슬프고도 아름다운 일생이 그녀의 몸종의 시선으로 그려지다.

# 하늘 꽃 한 송이, 너는

조선 최고의 여성 시인이자 조선 최초 합류를 일으킨 주인공 허남설현 슬프고도 아름다운 일생이 그녀의 몸종의 시선으로 그려지다.

소설 '하늘 꽃 한 송이, 너는'(북치는 마을)은 스물일곱 꽃다운 나이에 세상을 떠난 천재 시인 허남설현을 오늘 시대에 새롭게 되살려낸다.

소설가이자 문학박사. 목포대 강사와 광주여대 교수 역임. 소설 집 : '창', '알레그로 마에스토소', '꿈지를 위한 방법 서설' 장편소설 : '하늘 꽃 한송이, 너는', '허균, 불의 향기' 등